

책속인물에게 보내는
한글손편지

실력이 모자라지만, 더더욱
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.

신사임당님을 생각하며 시를 한번 지어 보았어요.

오늘도 그림을 그리네.

그림을 그리면 시간 가는 줄 모르네.

그림은 나의 하루

그림은 나의 전부.

잘 보셨죠? ^^

그럼 안녕히 계세요.

2020년 8월 3일 월요일

제주도의 꿈많은 소녀

임연지 올림 ^^